광주FC, K리그2 우승까지 '3승' 남았다

산드로 2골 1도움 … 전남과 '옐로더비' 3-2 역전승
승점 75 … 내일 2위 안양 꺾으면 우승에 -1

광주FC가 '옐로더비'에서 역전승을 이루면서 K리그2 우승에 '3승'을 남겨놨다.

광주가 지난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3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산드로를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다.

전반 17분 광주가 선제골을 내줬다.

전남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석현이 띄운 공이 광주 수비 맞고 뒤로 흘렀다. 공을 잡은 이후권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터닝 슈팅으로 광주 골대 오른쪽 상단을 뚫었다.

전반 25분 산드로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두현석이 중원에서 길게 공을 올렸고, 장신 공격수 허율이 머리로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떨궜다. 이어 산드로가 공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전남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39분에는 이민기의 시즌 첫 골이자 역전골이 만들어졌다. 이 골에도 산드로가 있었다.

오른쪽에서 페널티 박스로 돌진하던 두현석이 중앙에 있던 산드로에게 공을 보냈다. 세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인 산드로가 힐킥으로 왼쪽에 있던 이민기에게 패스를 했다. 잠시 뒤 이민기가 오른발로 감아 찬 공이 전남 골망을 흔들면서 광주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산드로의 멀티골이 장식됐다.

두현석이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가 문전에 있던 산드로의 머리로 향했다. 산드로가 머리로 공을 터치했고, 강하게 바운드 된 공이 그대로 전남 골대를 통과하면서 3-1이 됐다.

후반 6분 광주가 페널티킥골을 허용했다.

김재봉이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한 발로텔리와 몸싸움을 하다가 반칙을 했고, 전남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직접 키커로 나선 발로텔리가 오른발로 골을 기록하면서 3-2로 점수가 좁혀졌다. 하지만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3분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역전승을 완성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22승 9무 3패·승점 75)의 우승에 '3승'이 남았다.

광주는 2경기를 덜 치른 FC안양(17승 11무 5패·승점 62)에 13점 차 앞선 1위다.

안양이 남은 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광주는 남은 5경기에서 '승점 9점'을 보태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된다.

그만큼 14일 오후 7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안양의 맞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광주가 이 경기에서 승자가 되면 우승까지 '1승'만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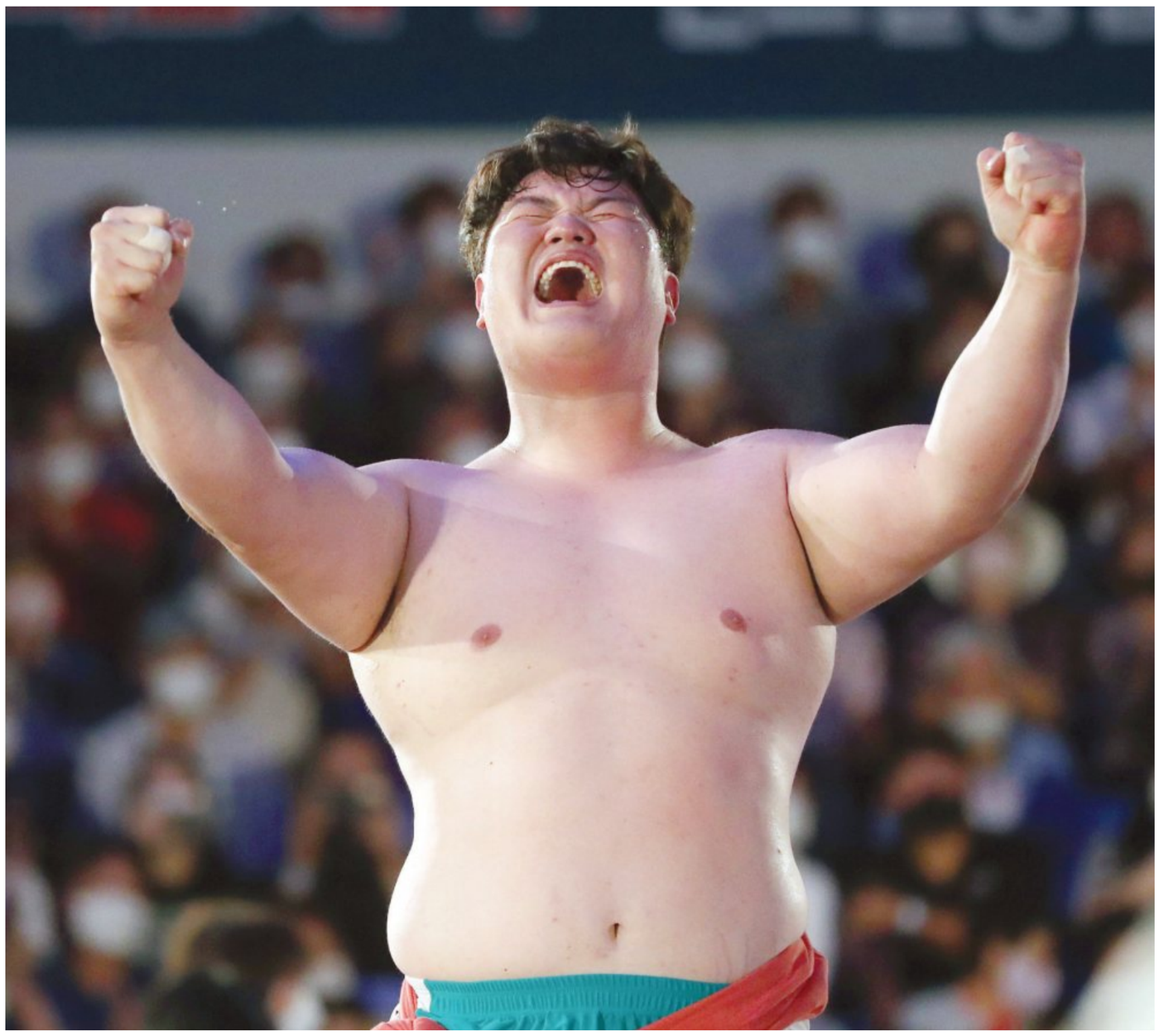
득점에서도 광주(57점)가 안양(46점)에 11점 앞서 있는 만큼 광주는 유리한 자리에서 우승을 위한 여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적지에서 승리를 이끈 광주 이정효 감독은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스태프 등 모든 구성원이 우승과 승격을 바라보고 경기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팀으로서 끝까지 잘 버텨준 점을 칭찬하고 싶다. 다음 (안양과의) 중요한 일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배로 전남은 20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산드로가 지난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백두장사의 포효 12일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 이하)에 등극한 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 장성우가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군씨름단, 추석 모래판 석권

장성우 백두장사 꽃가마
최성환 한라장사 등극
허선행 태백장사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 태백, 백두급 장사를 배출했다.

장성우는 12일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최성민(태안군청) 3-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장성우는 지난해 12월 문경왕중왕전 백두급 우승 후 약 9개월 만에 개인 통산 9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올 시즌 첫 우승이다.

8강에서 이영호(부산갈매기)를 2-1로 꺾은 그는 4강에서 박정석(창원특례시청)을 2-0으로 눕히고 결승에 진출, 올 시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최성민과 마주했다.

첫판에서 최성민이 밀어치기로 먼저 점수를 얻었으나, 이내 장성우가 반격에 나섰다.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 연달아 들배지기를 성공시킨 장성우가 2-1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진 네 번째 판에선 잡채기로 우승을 확정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이번 대회에서 세 명의 장사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성환은 지난 11일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 이하)에 등극했다.

그는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오창록을 3-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지난 7월 전역한 최성환은 변함없는 기량을 뽐내며 곧장 꽃가마에 올랐다. 개인 통산 10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이다.

허선행은 지난 9일 같은 대회 태백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장현진(제주특별자치도청)을 3-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지난해 2월 설날 대회에서 장사 꽃가마에 올랐던 허선행은 이로써 1년 7개월 만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허선행은 경기 뒤 "십자인대 부상 후 재활하면서 은퇴를 생각할 만큼 정말 힘들었다. 씨름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한동안 못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며 "팬들이 안 계셨다면 장사를 못했을 거다. 감독님과 코치님도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군청 엄하진은 여자부 국화급(70㎏ 이하) 결승에서 김다혜(안산시청)를 2-1로 물리쳤다.

엄하진은 0-1로 끌려가다 연달아 두 점을 따내면서 통산 7번째 국화장사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거제 대회와 단오 대회에 이어 3관왕을 달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4위 쉽지 않지만 4위 팀 바꾸기는 가능

타이거즈 전망대

KIA, 13·14일 키움과 홈경기
3·4위 순위싸움의 변수로
한화와 홈경기·삼성과 주말 원정

KIA 타이거즈가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나선다.

추석 연휴 기간 원정길에 올랐던 KIA가 안방으로 돌아와 승수 쌓기에 나선다.

13·14일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를 갖는 KIA는 15·16일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를 만난다. 이어 17·18일 대구로 건너가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2연전을 갖는다.

역시 눈길이 쏠리는 대결은 키움전이다.

5위 KIA는 지난주 4연승까지 기록하는 등 4승 2패를 기록했다. 4위 KT 위즈와 7경기 차, 6연승 중인 6위 NC 다이노스와는 4.5경기 차다.

4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KIA는 막판 순위 싸움에서 흥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주 KIA는 SSG 랜더스를 상대로 2승을 독식했다.

SSG 선발 모리만도를 상대로 황대인과 박동원이 '백투백 홈런'을 날렸고, 나성범도 서진용을 상대로 만루포를 쏘아 올리는 등 '한 방'의 힘으로 8일 경기에서 9-4 승리를 장식했다.

9일에는 파노니의 7이닝 무실점 호투 속 타선이 장단 17안타를 터트리면서 16-9의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문학 6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던 KIA는 화끈한 타격으로 연승을 기록, SSG와의 올 시즌 원정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반대로 SSG는 앞선 대결에서 10승 3패로 우위를 점했던 KIA에 2패를 기록하면서, 한때 2위 LG에 3경기 차까지 추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4경기 차 1위.

1위 싸움을 흔들었던 KIA가 이번에는 3위 싸움에 관여하게 된다.

3위 키움과 4위 KT는 반 경기 차에서 숨 막히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KIA의 움직임에 따라서 3·4위 자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키움전은 이의리의 복귀전으로도 관심이 쏠린다.

이의리

지난 1일 삼성전 이후 엔트리에서 말소돼 휴식을 취했던 이의리는 13일 키움을 상대로 시즌 26번째 등판을 소화하게 된다. 특히 키움에서 안우진이 선발로 출격하는 만큼 KBO리그의 좌우 영건의 흥미로운 마운드 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잘 쉬고 돌아온 이의리에게는 키움전 열세 만회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이의리는 올 시즌 키움과 4번 만나 23.2이닝을 소화하면서 4.94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상승세의 KIA 타선이 안우진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안우진은 지난 8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8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의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지만 8·9월 6경기에서 42이닝을 소화하면서 1.29의 평균자책점을 찍고 있다.

KIA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 나와 2.77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KIA가 흥미로운 마운드 영건 대결의 승자가 돼 순위표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용은, PGA 챔피언스투어 데뷔 이후 최고 성적 준우승

양용은(50)이 50세 이상이 경쟁하는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했다.

양용은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노우드 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어센션 채러티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를 적어낸 양용은은 우승자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14언더파 199타)에게 딱 한 타 뒤진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양용은이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에 데뷔한 이후 거둔 최고 성적이다.

올해 2월 처브 클래식부터 챔피언스투어에 나선 양용은은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시니어 브리티시오픈에서 공동 10위에 오른 게 이전까진 유일한 '톱10' 기록이었다.

이번 대회에선 챔피언스투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매 라운드 60대 타수를 써내며 첫 우승 문턱까지 갔다.

/연합뉴스